

참 좋은 당신

신호원 프란치스코

나섬대안학교장, 안동가톨릭문인회장(수필가)



〈생명의 은인〉

마흔 살 가을에 아내가 성당에 가자고 했습니다. 농담인 줄 알았습니다. 우리는 불교신자였거든요. 다음 날도 가자더니 일주일 뒤에는 성당에 가든지 헤어지든지 택하라고 했습니다. 결국 함께 교리반에 들어갔습니다. 어색하고 부끄러웠습니다.

그때 고등학교 선생이었는데 퇴근 후에는 늦은 밤까지 친구들과 어울려 놀았습니다. 부부 관계에도 자연 문제가 더해지면서 아내에게 우울증이 왔습니다. 어느 새벽 숨쉬기조차 어려운 상태였는데 남편은 곁에 없고 부처님은 불러도 대답이 없었습니다. 아내는 맨발로 가까운 성당에 달려가서 하느님께 매달렸습니다. “제발 저를 살려주십시오. 살려주시면 당신을 믿고 따르겠습니다.” 잠시 후 굳센 팔이 감싸 안으면서 마음은 알 수 없는 평화로 가득 찼습니다. 아내는 요즘도 그때 하느님께서 자신을 살려주셨다고 말합니다. 아내는 생명의 은인과의 약속을 지키고 싶었던 것이지요.

세례 후 아내는 안정을 찾고 성당 생활에 잘 적응했으나 나는 아니었습니다. 미사에 가는 것이 부담스러웠고 가서는 즐기 일주였습니다. 예수님이 머리로는 이해가 되었으나 가슴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거든요. 반년쯤 지나 쉬어야겠다고 하자 아내도 마지못해 수궁을 했습니다. 칠 년 동안 신자라는 사실도 있고 지냈습니다. 고스톱 포커에 중독이 되어 날마다 밤을 새우다시피 했습니다. 이혼의 위기도 있었고 건강에도 적신호가 왔습니다. 종종 내 인생이 이렇게

시들어 끝나는구나 라는 자책도 했지만 그 생활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고 벗어나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1998년에 다시 성당에 나갔습니다. 새해가 되면 냉담을 풀겠다는 약속을 더 미루기 어려웠거든요. 여전히 사람들이 낯설고 앉은 자리가 불편했습니다. 힘들다고 하니 아내가 사순시기부터 시작하는 성경세미나를 수료한 뒤 그만둬도 좋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성경세미나인 줄 알았습니다. 아무튼 이것으로 다시는 성당에 나올 일은 없을 것 같아 출석을 빠짐없이 했습니다. 날마다 남편을 위해 기도하는 아내에 대한 예의였습니다.

그런데 2주 3주가 지나면서 나도 모르게 세미나에 집중하게 되었습니다. 강의와 나눔을 통해 새로운 길을 찾고 영원한 생명을 만나고 싶어졌습니다. 사실 그것을 위하여 얼마나 많은 불면의 밤을 보내고 오래 헤매었던지요. 5주째 밤 성경세례를 위한 안수 기도를 받는데 어느 순간 흐르기 시작한 눈물이 견잡을 수 없었습니다. 제 안에 오래 고여 있던 것, 얽매고 있던 무엇이 다 빠져나오는 것 같았습니다. 성경에서 오신 것이지요. 그분은 따뜻한 손길과 다정한 음성으로 오셔서 하느님이 아빠 아버지시며(로마 8,15) 예수님이 주님이심(1코린 12,3) 고백하게 하셨습니다. 문득 내가 누구이고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며 무엇을 해야 하는지 확인해졌습니다.



하느님은 사랑이셨습니다. 나는 그분의 아들이 되었고 비로소 먼 길을 돌아 아버지 집에 돌아왔음을 알았습니다. 사월 하순 훈풍이 감미롭던 밤10시에서 11시 사이였지요.

다음날 출근길에 운동장에서 잠시 주저앉았습니다. 햇볕과 연두색 나뭇잎이 너무 눈부셔서요. 분명 어제 본 하늘과 자연이 아니었습니다. 혼란이 사라지고 자유로웠습니다. 주체할 수 없는 기쁨이 샘솟았는데 세상이 주는 것과는 달랐습니다. 이년 정도 쯤 날마다 기뻐했습니다. 그날 저녁식사 후 여느 날처럼 포커판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서둘러 현관을 나가다가 멈추었습니다. 내 방에 누군가 와 계시는 것 같았거든요. 손님이 오셨다고 둘러대고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보이진 않았지만 누군가 계셨습니다. 책상 앞에 앉자 따뜻한 기운이 감싸더군요. 그분께서는 새벽까지 성경읽기와 기도를 도와주셨습니다. 말씀은 영혼을 적셨고 처음으로 마음을 다해 기도했습니다. 그날 이후 도박판에는 한 번도 가지 못했습니다. 제 안의 주인이 바뀌었으니까요.

어쩌다 나 자신에 대해서 얘기할 기회가 있으면 두 개의 삶, 즉 성령세례를 받기 이전의 삶과 그 이후의 삶에 대해서 말합니다. 성령세례는 예수님이 지상에서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약속하고 명령한 것이며 (루카 24.48-49) 오순절에 베푸신 하느님의 위업이며 (사도 2.1) 신앙의 신비입니다. 또 예수님은 물과 성령으로 새로 나지 않으면 아무도 하느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요한 3.5) 못 박으셨습니다. 그러니 성령의 도움 없이 시작한 신앙생활은 무모하고 힘들 수 밖에 없었던 것이지요.

그 이듬해 교직에서 조기 퇴직을 했습니다. 마음을 따라 살고 싶었거든요. 그때부터 십오년째 안동교구 성령봉사회에서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가끔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생각해 봅니다.

아마 살아도 산 것이 아니었겠지요. 아내에게서처럼 예수님은 내 생명의 은인이십니다. 그리고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분은 주님이요 스승이시며 위로자요 보호자이십니다. 때로는 형님이시고 친구이시며 길이지요 진리요 생명입니다.(요한 14.6)

〈만점 당신〉

모임이나 행사장에서 가끔 물어 봅니다. 자신을 점수로 매기면 백점 만점에 몇 점을 주겠느냐고. 만점을 주는 이는 거의 없더군요. 오히려 절반 정도는 낙제점을 줍니다. 채점기준을 내가 정하고 채점도 내가 하는데도 그렇습니다. 점양이 아니지요. 그만큼 자신에 대한 평가가 인색한 것입니다. 내가 갖고 있는 좋은 것은 보지 못하고 단점만 보기 때문입니다. 자존감이 떨어지고 열등감에 사로잡혀 있으니 의욕이 생길 리 없습니다. 사람도 싫어지고 어디서든 즐겁지 않습니다. 내가 나를 오십 점짜리로 여기면 남도 나를 오십 점짜리로 취급합니다. 자기를 좋아하고 미워하는 것을 귀신같이 알듯이 어떤 때는 사람들이 내 속을 나보다 더 잘 들여다봅니다. 내가 나에게 백 점을 주면 다른 이들도 나를 만점 인간으로 대접합니다.

학교에서 매달 작문 시험을 칩니다. 학년 구분 없이 같은 제목으로 참가합니다. 당연히 실력 차이가 나지요. 그래도 대부분 백점을 맞습니다. 전번보다 조금이라도 향상되었으면 무조건 백점이거든요. 채점기준을 그렇게 정했기 때문입니다. 또 부족해도 그럴듯한 이유를 찾아 만점을 주려고 합니다. 백점 받으면 모두 좋아합니다. 좋아하니 자신감을 갖게 되고 실력도 차츰 늘어납니다.

자신에게 백점을 주어야 합니다. 만점을 줄 수 있는 이유는 얼마든지 찾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자신을 사랑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지요. 나를 평가하고 채점할 수 있는 사람은 오직 나 자신뿐입니다. 채점기준도 물론 내가 만듭니다. 관점과 태도를 바꾼

다는 얘가지요. 내가 나를 사랑해야 다른 사람도 나를 사랑하게 됩니다.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 이웃을 너 자신처럼 사랑해야 한다.” (마태 22-39)

자존감이 넉넉한 사람에게는 두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우선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합니다. 그분이 사랑이시며 내가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존재임을 깨달은 사람들이지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고 내가 그분의 아들이라는, 자신의 신원에 대한 확신이 있으면 세상에 부러울 게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늘 감사합니다. 그분 안에서는 모든 것이 은총이지요. 구원은 새로운 관점을 갖는다는 것입니다. 감사가 더 큰 감사를 낳습니다. 감사는 훈련이고 어느새 습관입니다.

세상에 나보다 더 소중한 존재는 없습니다. 천상 천하유아독존(天上天下唯我獨尊)이지요. 해와 달도 나를 위해서 뜨고 집니다. 내가 없으면 우주도 사라지니 나는 우주에 값합니다. 그러니 껌껌하게 남과 비교하며 자기를 비하하는 태도를 버려야 합니다. 그와 나는 다만 다를 뿐 우열의 관계가 아닙니다. 사소한 것에 움츠리고 기죽을 필요도 없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은 사소합니다.(리처드 칼슨)

시간 날 때마다 “나는 백점이다.” 외쳐보시지요. 정말 백점짜리가 됩니다. 나의 속속들이 응원군은 나뿐입니다. 수시로 응원을 불러야지요. 그리고 내 곁에 있는 당신도 만점이라고 덧붙이시고요. 만점 당신, 참 눈부십니다.

- 3월 23일 제6회 정기총회 특강 내용중의 일부입니다.-

(사)한국 가톨릭 호스피스 협회 후원회 가입 안내

질병의 고통에 시달리고 있는 환우와 가족들은 우리 모두의 형제자매이며, 살아가는 동안 기쁨과 평화를 누릴 수 있도록 함께 나누고 사랑해야 할 이웃들입니다.

호스피스는 환우들이 여생동안 삶의 질을 높이고 품위 있는 임종을 맞이하도록 도우면서 치유자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삶 안에 실현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의 풍요로운 삶과 호스피스의 발전을 위해 많은 분들의 관심과 후원을 고대합니다.

■ 후원금입금통장계좌번호

· 우리은행 1005-301-724073 · 국민은행 994437-01-003288 · 농협 301-0067-5700-11
· 신한은행 100-026-725929

■ 예금주 : (사)한국가톨릭호스피스 협회 ■ 문의전화 : 02)2258-7039

여러분들의 따뜻한 작은사랑이 어떤이들에게는 희망과 평화입니다.
입금 후 협회로 연락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